

남부지방 5일장에서 신선 산채류의 유통 실태

배 종 향 · 조 자 용 · 양 승 렬 · 김 병 운 · 장 홍 기 · 천 상 욱 · 허 북 구
원광대학교 원예애완동식물학부 · 남도대학 약용자원원예개발과 · 순천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 목포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 (주)세노코 · (주)캐리스

The Actual Distributing States of the Fresh Wild Vegetables in the Five-Day Traditional Markets of the Southern Districts in Korea

Bae, Jong Hyang · Cho, Ja Yong · Yang, Seung Yul · Kim, Byoung Woon · Jang, Hong Gi
· Chon, Sang Uk · Heo, Buk Gu

Div. of Horticulture and Pet Animal-Plant Science, Wonkwang Univ., Iksan, Korea

Dept. of Medicinal Resources & Horticulture Development, Namdo Provincial College of Jeonnam,
Jangheung, Korea

Div. of Plant Science and Production, Suncheon Nat'l. Univ., Suncheon, Korea

Major in Horticultural Science, Div. of Applied Bioscience, Mokpo National University, Muan, Korea

Senoco Inc., Naju, Korea

Callus Inc., K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kinds of fresh wild vegetables, the number of street stalls, seller's age, and the selling list of items of the street stall in the five-day traditional markets of Gyeongnam Tongyoung and Namhae, Jeonnam Naju and Younggwang, Jeonbuk Iksan and Jangsu, from March to May, 2005. The number of street stalls selling fresh wild vegetables was forty nine in Tongyoung, twenty five in Namhae, thirty in Naju, eighteen in Younggwang, one hundred and thirty in Iksan, and seventeen in Jangsu. The selling lists of items totaled forty items; thirty in Tongyoung, seventeen in Namhae, twenty in Naju, sixteen in Younggwang, twenty seven in Iksan, and thirteen in Jangsu. The main kinds were *Aster scaber*, *Aralia elata*, *Pteridium aquilinum* var. *latussculum*, *Artemisia princeps*, *Sedum sarmentosum*, *Oenanthe javanica*, *Platycodon grandiflorum*, *Petasites japonicus* and *Allium monanthum*. Sprouts of woody plants such as *Aralia elata*, *Ailanthus altissima*, *Meliosma oldhamii*, and *Kalopanax pictus* were also being sold. About 80% of the sellers were over fifty one years old. Half of the sellers were at least sixty years old. More than 77% of the street stalls in the traditional markets sell fewer than four kinds of fresh wild vegetables.

Key words: fresh wild vegetable, the five-day traditional market, sprouts of woody plants

I. 서론

한 민족의 음식문화는 그 나라의 기후, 지리적 자연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그리고 민족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어 진다(Han & Park 2001). 우리나라는 조선조 후기의 잦은 가뭄과 전란이나 민란 등의 각종 재해 속에서 산채류는 중요한 구황식품으로서 식용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채식위주의 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Hwang 1991; Kang 1993). 비록 식량자원의 부족에 의해 다른 나라 보다 산채류의 이용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산채류가 건강유지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Moon et al. 2003).

산채류는 이처럼 그 이용역사가 오래된 만큼 종류에 따른 이용법에 다양하게 개발되어 전승되고 있으며(Kang 1993), 신토불이 식품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연중 먹을 수 있고(Han & Park 2001), 독특한 맛과 기능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Jung et al. 1999; Ryu et al. 2004). 더불어 지역 및 품목에 따른 생산시기 차이에 의한 특성은 선물용 상품 및 지역특산물로 개발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의 개발과 활용은 농촌의 소득 증대 및 지역 특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도 산채류의 개발이나 이용법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현재 산채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고령자의 사망증가, 가공식품의 유통량 증가에 의해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산채류의 종류, 이용법에 대한 기술이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촌자원의 발굴과 산채 자원의 산업화, 산채 나물문화의 전승, 보존과 발전 측면에서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촌부존자원의 발굴, 산채자원의 산업화 및 산채 이용 문화의 전승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경남,

전남 및 전북지역 일부 5일장을 중심으로 신선 산채류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5년 2월 초부터 동년 5월 중순까지 경상남도 통영시와 남해군,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광군, 전라북도 익산시와 장수군의 5일장을 중심으로 산채류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각기 3월 셋째 주, 4월 둘째 주, 5월 첫째 주 등 3회에 걸쳐 5일장을 방문하여 10~13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5일장은 통영시의 경우 '충무시장'이었으며, 남해는 '남해 읍장', 나주는 나주시내에 위치한 '성북장(4월 둘째 주)과 영산포 풍물시장(3월 셋째 주와 5월 첫째 주)' 영광은 '영광 읍장', 익산은 익산시내에 위치한 '북부시장', 장수는 '장수 읍장'이었다.

조사항목은 총 판매처 수, 출하품목 종류와 판매처 비율, 출하 품목의 규격, 판매자의 연령, 판매처 당 판매품목 종류 수를 조사하였는데, 판매처 수는 시장 내에 채소가게를 하면서 산채류를 같이 판매하는 곳은 제외하였다. 출하품목(종류의) 종류는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구분하였되 구별이 어려운 것은 판매자들이 부르는 이름을 기록한 것과 사진 촬영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식물도감의 자료와 대조하여 분류하였다. 이 때 산채의 범위는 재배가 되는 것일지라도 현재도 다수가 산이나 들에서 채취되고 있는 종류와 도입종인 자운영을 산채에 포함시키되 대부분이 재배되어 출하되는 쑥갓, 보리, 아욱, 들깨 잎, 메밀, 부추 등의 품목들은 자료의 정리과정에서 제외하였다. 판매처 비율은 각각의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조사한 후 "판매처비율=해당품목의 판매처 수/총판매처 수×100"으로 하였다. 품목별 규격은 시장에서 구입 직후 계량하였는데, 잎자루가 긴 식물들은 잎 길이에 잎자루까지 포함시켰다. 판매자의 연령은 판매자에게 직접 질

문을 하여 조사하였다. 판매처 당 판매품목 종류 수는 각각의 판매처 당 일련번호를 부여한 다음 판매품목을 기록하여 조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산채류 판매처 수

경남, 전남 및 전북 일부지역 5일장을 대상으로 신선 산채류의 판매처 수를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았다. 각 지역별 판매처 수는 조사 일의 날씨, 지역의 행사 등에 따른 차이를 보인 가운데 평균적으로 익산시는 130군데, 통영시는 49군데, 나주시는 30군데로 시 단위의 5일장은 30군데가 넘는 반면에 남해군 25군데, 영광 18군데, 장수는 17군데였다. 조사지역 5일장에서 신선 산채류의 판매처는 시장규모와 비례했었는데, 시장 규모가 큰 곳은 도심에 가까운 곳이었으며, 시장 규모가 작은 곳은 산간지방이나 해안지방이었다. 이 중 전북 장수는 산간지방으로 산채류의 자원이 풍부해 많은 산채류의 출하가 기대되었으나 판매처의 수 측면에서는 조사 대상지 중 제일 적었다. 그 원인은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량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 시장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산채류를 출하해도 예전처럼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제로 산채류 조사를 위해 면 단위의 5일장을 방문해 본 결과 대다수의 시장들은 이름만 존재하고 있었으며, 5일장이 열리는 곳도 장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소규모화되어 있었고, 오전에 잠깐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는 형태였다. 이는 장수의 경우처럼 산채류를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일지라도 유통구조

개선이나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로가 없어 산채류의 채취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시장에 출하되는 산채류의 종류나 양은 점점 감소되고, 그에 비례해서 전통적인 산채류 이용 문화도 쇠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채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경우 농촌 부존자원과 부업거리 개발, 농외소득 증대 측면에서 채취한 산채류를 수집하거나 가공 등을 하여 인근의 작은 시장이 아닌 도심의 큰 시장으로 출하할 수 있거나 최신의 유통기구에 의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신선 산채류의 출하 종류

경남, 전남 및 전북 일부지역 5일장에 출하된 산채류를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이 통영시는 30종, 남해군은 17종, 나주시는 20종, 영광군은 16종, 익산시는 27종, 장수군은 13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통영시의 경우 돌미나리(24.5%), 두릅나무(24.5%), 참취(22.4%)의 판매처 비율이 높은 가운데, 배초향(16.3%)과 민들레(12.2%), 음나무(10.2%)는 다른 지역보다 판매하는 곳이 많았으며, 고추나물(6.1%), 방풍(4.1%), 참반디(4.1%), 비비추(4.1%), 다래나무(2.0%), 화살나무(2.1%), 잔대(2.0%), 우산나물(2.0%), 톱풀(2.0%)은 통영의 충무시장에서만 관찰되었다. 이러한 산채의 판매자들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팔려고 채취하여 시장에 출하한 것 중 고추나물은 각종 출혈 증상, 월경불순 및 타박상의 치료에 사용되며, luteolin계열의 C-glycosyl flavonoid인 orientin이 강력한 항산화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1. Number of street stalls for the fresh wild vegetables in the five-day traditional markets of the partial Gyeongnam, Jeonnam and Jeonbuk districts

Frequency	Number of street stalls to the investigating sites					
	Tongyoung	Namhae	Naju	Younggwang	Iksan	Jangsu
1st	51	23	24	16	126	17
2nd	57	27	36	21	144	19
3rd	39	25	30	17	120	15
Ave.	49	25	30	18	130	17

Table 2. The ratios of kinds and the list of articles for the fresh edible wild vegetables in a five-day conventional markets of the partial Gyeongnam, Jeonnam and Jeonbuk districts

Plants	Proportion to marketing place (%)					
	Tongyoung	Namhae	Naju	Younggwang	Iksan	Jangsu
<i>Achillea alpina</i> 톱풀	2.0	0.0	0.0	0.0	0.0	0.0
<i>Actinidia arguta</i> 다래나무	2.0	0.0	0.0	0.0	0.0	0.0
<i>Aenophola triphylla</i> 잔대	2.0	0.0	0.0	0.0	0.0	0.0
<i>Agastach rugosa</i> 배초향	16.3	10.7	0.0	3.7	0.0	0.0
<i>Ailanthus altissima</i> 가중나무	0.0	0.0	2.2	0.0	11.5	0.0
<i>Allium monanthum</i> 달래	14.3	32.7	12.2	27.8	10.8	17.6
<i>Allium senescens</i> 두메부추	6.1	2.7	0.0	0.0	3.8	0.0
<i>Amaranthus lividus</i> 비름	0.0	0.0	0.0	0.0	1.5	0.0
<i>Aralia cordata</i> 독활	6.1	18.4	7.8	13.0	8.5	0.0
<i>Aralia elata</i> 두릅나무	24.5	45.8	5.6	18.5	30.0	47.1
<i>Artemisia japonica</i> 제비쭉	0.0	0.0	6.7	0.0	0.0	0.0
<i>Artemisia princeps</i> 쑥	16.3	34.7	21.1	31.8	13.1	23.5
<i>Aster scaber</i> 참취	22.4	44.4	32.2	36.7	16.9	52.9
<i>Astragalus sinicus</i> 자운영	0.0	0.0	6.7	0.0	0.0	0.0
<i>Capsella bursa-pastoris</i> 냉이	12.2	24.0	8.9	13.0	13.1	17.6
<i>Cirsium japonicum</i> 엉겅퀴	0.0	0.0	4.5	0.0	1.5	0.0
<i>Codonopsis lanceolata</i> 더덕	6.1	4.0	2.2	9.3	2.3	23.5
<i>Cryptotaenia japonica</i> 반디나물	6.1	0.0	5.6	9.3	5.4	5.9
<i>Euonymus alatus</i> 화살나무	2.1	0.0	0.0	0.0	0.0	0.0
<i>Hemerocallis fulva</i> 원추리	6.1	0.0	3.3	0.0	0.0	0.0
<i>Hosta longipes</i> 비비추	4.1	0.0	0.0	0.0	0.0	0.0
<i>Hypericum erectum</i> 고추나물	6.1	0.0	0.0	0.0	0.0	0.0
<i>Ixerris dentata</i> 썸바귀	0.0	0.0	2.2	0.0	5.4	0.0
<i>Kalimeris yomena</i> 쑥부쟁이	8.2	9.3	13.3	18.5	11.5	17.6
<i>Kalopanax pictus</i> 음나무	10.2	13.3	0.0	0.0	2.3	0.0
<i>Lactuca raddeana</i> 산썸바귀	0.0	0.0	0.0	0.0	2.3	0.0
<i>Ligularia fischeri</i> 곰취	0.0	0.0	0.0	0.0	1.5	0.0
<i>Meliosma oldhamii</i> 합다리나무	0.0	0.0	0.0	0.0	1.5	0.0
<i>Morus bombycis</i> 산뽕나무	0.0	0.0	0.0	0.0	2.1	0.0
<i>Oenanthe javanica</i> 돌미나리	24.5	21.6	36.7	18.5	16.2	17.6
<i>Petasites japonicus</i> 머위	18.4	17.3	8.9	9.3	12.3	17.6
<i>Platycodon grandiflorum</i> 도라지	6.1	18.6	13.3	13.0	24.6	23.5
<i>Pteridium aquilinum var. latussculum</i> 고사리	8.9	23.7	33.3	27.8	18.5	29.3
<i>Samicula chinensis</i> 참반디	4.1	0.0	0.0	0.0	0.0	0.0
<i>Saposhnikovia seseloides</i> 방풍	4.1	0.0	0.0	0.0	0.0	0.0
<i>Sedum sarmentosum</i> 돌나물	14.3	18.5	11.1	24.1	11.5	17.6
<i>Syneilesis palmata</i> 우산나물	2.0	0.0	0.0	0.0	0.0	0.0
<i>Taraxacum platycarpum</i> 민들레	12.2	0.0	0.0	0.0	1.5	0.0
<i>Youngia sonchifolia</i> 고들빼기	4.1	4.0	0.0	9.3	3.1	0.0
<i>Youngia sonchifolia</i> 보리쟁이	0.0	0.0	0.0	0.0	2.3	0.0
Total number of kinds	30	17	20	16	27	13

(Jung et al. 1999). 또 고추나물은 면역활성이 좋은 것(Park et al. 2004)으로 보고되어 그 기능적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에게 구별법이나 채취방법, 요리법이 전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알고 있는 나물의 종류나 이용법에 대한 기록과 함께 젊은 층들에게 전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해군은 두릅나무(45.8%), 참취(44.4%), 달래(32.7%)의 판매처가 많은 가운데 배초향은 10.7%로 같은 경남지역인 통영의 16.3%와 함께 비교적 판매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돌미나리(36.7%, 고사리(33.3%), 참취(32.2%)의 판매처 비율이 높았는데, 이 중 돌미나리의 경우 영산강변에서 많이 채취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나주시 5일장에서는 다른 지

역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제비쑥(6.7%), 자운영(6.7%)이 관찰되었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18.2% 이상의 판매처에서 판매된 두릅나무 순은 나주시 5일장에서는 5.6%의 판매처에서만 판매되어 평야지인 지역의 지리특성이 반영되었다.

익산시의 경우 5일장에 출하된 산채류는 27종이었는데, 이 중 두릅나무(30.0%), 도라지(24.6%), 고사리(18.5%), 참취(17.0%)의 판매처 비율이 높았으며, 가중나무는 다른 지역보다 판매하는 곳이 많았으며, 다른 지역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비름, 산썸바귀, 곰취, 합다리나무, 보리뱅이, 산뽕나무도 출하되었다. 장수군 장수읍 5일장에 출하된 13종의 신선 산채류 중 참취(52.9%), 두릅나무(47.1%), 고사리(29.3%) 등의 판매처가 많은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관찰되지 않은 종류는 없었다.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sh wild vegetables in the five-day traditional markets of the partial Gyeongnam, Jeonnam and Jeonbuk districts

Plants	Standard of commodity				
	Plant height (cm)	Number of leaves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Fresh wt. (g/plant)
<i>Actinidia arguta</i> 다래나무	4.5±1.7	5.5±1.2	2.3±0.6	1.3±0.7	3.2±0.7
<i>Aenophola triphylla</i> 잔대	5.6±1.2	6.2±0.8	4.8±1.8	1.3±0.3	1.72±0.9
<i>Ailanthus altissima</i> 가중나무	12.8±4.3	5.4±1.1	6.8±3.2	3.2±0.5	9.2±1.4
<i>Amaranthus lividus</i> 비름	8.6±1.7	9.3±1.5	7.9±2.1	2.3±0.2	1.9±0.9
<i>Aralia elata</i> 두릅나무	11.8±3.8	4.2±0.6	9.4±3.6	1.8±0.8	10.2±2.3
<i>Artemisia japonica</i> 제비쑥	5.8±1.3	7.2±1.6	4.2±1.3	0.9±0.1	0.45±0.2
<i>Artemisia princeps</i> 쑥	5.5±1.2	6.3±0.7	11.8±2.3	4.2±1.0	1.59±0.8
<i>Astragalus sinicus</i> 자운영	15.2±4.3	4.6±0.9	13.2±5.2	4.7±1.2	1.30±0.3
<i>Cirsium japonicum</i> 영경취	6.8±2.1	6.7±0.5	14.6±5.3	8.5±1.5	5.6±1.2
<i>Euonymus alatus</i> 화살나무	5.9±2.1	5.9±1.3	2.3±0.3	1.3±0.3	3.2±0.6
<i>Hemerocallis fulva</i> 원추리	24.5±6.5	6.4±0.7	23.7±6.2	1.8±0.8	5.1±1.2
<i>Hypericum erectum</i> 고추나물	10.1±2.1	9.7±1.7	4.8±2.4	2.2±0.2	1.76±0.6
<i>Ixerris dentata</i> 썸바귀	10.2±1.8	8.4±1.3	9.8±3.2	1.9±0.3	1.70±0.7
<i>Kalimeris yomena</i> 쑥부쟁이	11.2±2.4	4.3±1.1	11.2±4.3	1.8±0.3	1.68±0.8
<i>Kalopanax pictus</i> 음나무	15.5±5.3	9.8±2.3	5.7±2.1	5.5±1.9	5.9±1.1
<i>Ligularia fischeri</i> 곰취	15.5±3.2	4.3±1.1	15.1±5.8	7.4±1.0	1.3±0.5
<i>Meliosma oldhamii</i> 합다리나무	12.8±5.7	4.9±0.7	11.8±4.2	1.4±0.2	8.2±2.4
<i>Oenanthe javanica</i> 돌미나리	23.2±9.2	4.2±0.6	11.2±5.1	6.2±2.1	4.96±2.1
<i>Saposhnikovia seseloides</i> 방풍	13.5±3.2	4.7±0.6	18.4±4.3	11.6±2.4	5.45±1.1
<i>Sedum sarmentosum</i> 돌나물	7.4±2.7	5.2±0.8	2.2±1.1	0.4±0.1	0.96±0.4

장수군의 경우 산간지역인데도 이렇게 판매되는 종류수가 적은 것은 시장규모가 적은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경남, 전남 및 전북 일부 지역 5일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선 산채를 조사한 결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냈으며,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산채시험장에서 선정한 23과 80종(Nam & Baik 2005)에 포함되지 않은 가중나무, 비름, 합다리나무, 보리뱅이 등도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합다리나무의 경우 산채 및 나물관련 문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고, 그 성분이나 이용법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그 성분이나 이용방법에 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주요 산채류의 규격

경남, 전남 및 전북 일부 지역 5일장에 출하된 산채류 중 주요 산채류의 규격을 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초장은 10cm 내외였다. 다만 초본류 중 반 덩굴성 식물인 돌미나리는 23.2cm, 자운영은 15.2cm였으며, 초기 생장이 빠른 원추리는 24.5cm였다. 또 순을 이용하는 음나무, 가중나무, 두릅나무 등의 목본류는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폭넓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잎의 수는 전체적으로 4.2~9.8개였는데, 비름, 음나무 및 고추나물은 9개 이상으로 많았다. 잎 길이는 원추리(23.7cm), 방풍(18.4cm), 곰취(15.1cm) 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원추리는 잎의 초기 생장이 빠른데서, 방풍과 곰취는

잎자루가 긴데서 기인되었다. 그러므로 방풍이나 곰취 같이 잎자루가 긴 것은 잎 길이와 실제적인 가식부의 크기와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잎 넓이 및 무게는 초본류는 편차가 적은 반면에 목본류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른 자료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시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동일시기의 경우 남해군, 통영시 등 남부 지역에 비해 익산시와 장수군 등 상대적으로 북부지방에서 작은 크기를 이용하였으며, 시기별로는 3, 4월 보다 5월초에 출하된 것들이 동일 종류라도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산채류 판매자의 연령대

경남, 전남 및 전북 일부 지역 5일장에서 산채류 판매자들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Table 4와 같이 51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61세 이상의 고령자는 통영시의 경우 66.9%, 남해군은 69.8%, 나주시는 60.0%, 영광군은 59.1%, 익산시는 53.9%, 장수는 70.6%로 5일장에서 산채류 판매자들의 반 이상이 61세 이상의 고령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채류 판매자들 중 이처럼 고령자가 많은 것은 조사지역이 농촌 및 산간 지역이어서 고령자 비율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제로 Yoon과 Park(2005)에 의하면 60세 이상 총 경제활동 인구의 63.9%는 농촌에, 36.1%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농촌 거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농촌노인의 대다수가 종사하는 농림축산업에 정년연령이 없기 때문이라

Table 4. Distribution of ages for the seller of an wild plants in the five-day traditional markets of the partial Gyeongnam, Jeonnam and Jeonbuk districts

Ages	Proportion to the age (%)					
	Tongyoung	Namhae	Naju	Younggwang	Iksan	Jangsu
20~40	4.3	6.4	6.7	0.0	1.5	0.0
41~50	12.4	10.8	13.3	9.0	6.9	5.9
51~60	16.4	13.0	20.0	40.9	37.7	23.5
61~70	49.7	54.3	36.7	45.5	38.5	64.7
71~90	17.2	15.5	23.3	13.6	15.4	5.9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5. The ratios of the kinds and the lists of marketing items to the street stalls for the fresh wild vegetables in the five-day traditional markets of the partial Gyeongnam, Jeonnam and Jeonbuk districts

Kinds of wild vegetables	The proportion of kinds to marketing districts (%)					
	Tongyoung	Namhae	Naju	Younggwang	Iksan	Jangsu
1~2	57.2	45.2	56.7	45.5	40.8	55.6
3~4	34.6	48.5	34.4	40.9	55.4	38.9
5~6	4.1	6.3	5.6	13.6	2.3	5.6
Over 7	4.1	0.0	3.3	0.0	1.5	0.0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고 하였다. 따라서 산채류의 채취 및 판매는 농촌노인들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부업거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신선 산채류의 판매자중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이 분들이 전통적인 산채의 종류나 이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산채를 이용해 본 경험이 많으므로 산채문화의 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령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고령자들이 알고 있는 산채류 문화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고령자의 사망 증가에 따라 산채 문화도 소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장조사에서 산채류 판매자들에게 주요 구매자들의 연령대를 질문한 결과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고 하여 산채의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산채 문화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정리를 하여 보존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5. 판매처당 판매 품목의 종류 수

경남, 전남 및 전북 일부 지역 5일장에서 신선 산채류의 판매처별에 따른 판매품목 종류 수를 조사한 결과 Table 5와 같이 77% 이상이 4종류 이하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중 1~2종류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는 통영시의 경우 57.2%, 남해 45.2%, 나주 56.7%, 영광 45.5%, 익산 40.8%, 장수 55.6%로 절반 가까이 되어 산채류의 채취 및 판매가 전업이라기 보다는 부업이나 소일거리로 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료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현지 시장 조사결과 산채의 가격은 두릅나무순, 음나무순, 합다리나무순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kg에 2,000원 정도 하였으며, 산채를 판매하는 분들이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갖고 온 산채의 양은 종류당 2~4kg였다. 그러므로 평균 3종류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1인당 12,000~24,000원 정도였는데, 채취에 대한 시간과 노동력, 시장까지 오고 가는 비용, 시장에서 판매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동비를 감안할 때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산채류를 채취하여 시장에 출하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농촌에서 부업거리가 많지 않은 것도 한 이유겠지만 Table 4에서와 같이 고령자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고령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업거리나 소일거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산채류의 채취는 고령자들이 큰비용이나 노동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산채의 채취 등은 고령자들의 소일거리, 부업거리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산간 지역의 시장규모는 점점 작아짐에 따라 판매 기회가 줄어들고, 가격 경쟁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게 현실로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연구나 논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농촌부존자원의 발굴, 산채자원의 산업화 및 산채 이용 문화의 전승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전남 나주시와 영광군, 전북 익산시와 장수군의 5일장에 출하된 신선 산채류의 종류, 판매처의 수, 판매자의 연령, 판매처별 판매품목 수를 조사하였다. 신선 산채류를 판매하는 곳은 통영의 경우 49군데, 남해는 25군데, 나주는 30군데, 영광은 18군데, 익산은 130군데, 장수는 17군데였다. 신선 산채류의 출하 품목은 총 40종류였으며, 지역별로는 통영의 경우 30종, 남해는 17종, 나주는 20종, 영광은 16종, 익산은 27종, 장수 시장에는 13종이 출하되었다. 신선 산채류 중 참취, 두릅나무, 고사리, 쑥, 돌나물, 돌미나리, 도라지, 머위, 달래는 전체적으로 판매처가 많았다. 신선산채류 중에는 두릅나무, 가중나무, 합다리나무, 음나무, 다래나무 등 목본 식물의 싹도 출하되었다. 산채류 판매자들의 연령대는 51세 이상이 8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61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신선 산채류의 판매처당 판매품목 수는 4종류 이하를 판매하는 곳이 77% 이상 되었다.

참고문헌

- Bae SE, Yoon JS, Jeong SK, Kim CH, Yoon GS(2004)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consumption type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Kor J Community Living Science 15(4), 149-163.
- Han YS, Park JY(2001) The microbiological and sensorial properties of frozen bibimbap namul during storage. Korean J Soc Food & Cookery Sci 17(2), 149-155.
- Hwang EH(1991) A survey on availability of wild vegetables. J Kor Soc Food & Nutr 20(5), 440-446.
- Jung CM, Hwang EJ, Kwon HC, Kim SY(1999) Antioxidative flavonoids from *Hypericum erectum*. Kor J Pharmacogn 30(2), 196-201.
- Kang EJ(1993) A bibliographical study on namul of Koryo and Chosun dynasty. Kor J Food & Nutr 6(1), 16-24.
- Moon SG, Jeong, SH, Choi, CM(2003) Classification of the edible plants on the market in Busan. Kor J Life Science 13(6), 764-774.
- Nam YK, Baik JA(2005) Status of research and possibility of development about endemic wild vegetables in Korea. J Kor Soc Plant People & Environment 8(1), 1-10.
- Ryu MH, Lee SC, Shin HD, Shin MK, Song HJ(2004) Studies on the anti-tumor effects of the extract from herba *Ajugae multiflorae*. Kor J Herbology 19(3), 35-45.
- Yoon SD, Park GJ(2005) Development on the new kind of occupation suitable for elderly in rural. Kor J Community Living Science 16(1), 21-36.